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研究

劉 根 子*

차 례

- I. 머리말
- II. 藥師信仰의 도입과 유행
- III.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조성
 - 1. 형식분류
 - 2. 양식변천
- IV.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미술사적 의의
- V. 맺음말

I. 머리말

인간의 근본 고통은 生老病死이다. 그중 가장 현실적인 고통을 들라면 病苦를 들수 있다. 이처럼 인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문제를 불교에서는 藥師信仰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藥師信仰의 유행과 함께 藥師佛像의 조성도 두드러진 사회현상 가운데 하나였다. 따라서 이를 해명하기 위한 연구들이 있어 왔지만 그것이 가지는 사회사적·미술사적 특성이 온전히 밝혀진 것은 아니었다.¹⁾ 특히 약사신앙이 유행할 수 있었던 정치·사회

*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미술사학 전공.

1) 우리나라의 藥師信仰과 藥師佛像에 관해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高裕燮, 「藥師信仰과 新羅美術」, 『韓國美術史及美學論叢』(통문관, 1979년 3版), pp. 55~67.
- ② 高翊晉, 「新羅密敎의 思想內容과 展開樣相」, 『韓國密敎思想史研究』(민족사, 1986), pp. 127~221.
- ③ 朴相文, 「藥師信仰研究」, 동국대 불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73.
- ④ 文明大, 「新羅下代 佛敎彫刻의 研究(I)-防禦山 및 實相寺 藥師如來巨像을 중심으로-」, 『歷史學報』 73집(역사학회, 1977), pp. 5~37.
- ⑤ 金春實, 「三國時代의 金銅藥師如來立像 研究」, 『美術資料』 36(국립중앙박물관, 1985), pp. 1~35.
- ⑥ 金惠婉, 「新羅의 藥師信仰」,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pp. 311~343

적인 여건이나, 이른바 약사신앙의 수용세력을 간과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삼국시대 藥師佛像에 대해서는 김춘실씨가 발표한 바가 있다.²⁾ 또한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도³⁾ 있어서 본 논문에서는 藥器印⁴⁾ 藥師佛像 도상이 확립되는 통일신라 藥師佛像에 한정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약사신앙의 도입과 유행을 살펴보고 둘째,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형식분류를 手印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아울러 양식변천을 다루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시대 藥師佛像의 특징이 도상에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미술사적 의의를 고찰하겠다.

II. 藥師信仰의 도입과 유행

藥師信仰은 藥師琉璃光如來佛 또는 大醫王佛이라고 하는 藥師如來佛이 보살이었을 때에 서원한 12大願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이 12대원은 크게 두가지로 구별된다. 그 하나는 중생들이 가지는 현세의 소망을 이루게 한 후 궁극적으로 無上菩提를 이루게 한다는 것(7대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생들의 병고를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것(3대원)이다. 따라서 약사신앙은 중생들의 병고 내지는 질병의 치료 뿐만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현세의 소망을 성취하고 마침내는 해탈하고자 하는 기대 속에서 이루어진 신앙 체계였다.

이러한 약사신앙이 언제 도입되었는가와 관련해서는 명확하게 해명할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왕실과 귀족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즉 신라의 약사신앙은 국왕에 의해 수용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정치·사회 중심으로 살펴보고, 지면 관계상 사상 부분은 생략하겠다.

⑦ 鄭盛準, 「新羅 藥師信仰 研究」, 동국대 석사학위논문, 1992.

⑧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藥師如來坐像의 한 類型」, 『佛敎美術』 제11집(동국대박물관, 1992), pp. 91~103.

2) 金春實, 앞 논문 참조.

3) 金春實氏는 앞 논문에서 손에 寶珠形의 持物을 가진 佛像을 藥師佛像으로 보아 태안 마애삼존불의 왼쪽 불상이 손에 寶珠를 들고 있기 때문에 약사불로 보았다. 그러나 삼국시대 寶珠를 가진 불상을 모두 약사불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지금으로서는 명확히 할 수 없다. 이에 대해서 文明大 교수는 “7세기 후반기에는 약사여래상이 藥盒을 든 손모양(契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물로서도 알 길이 없다. 그러나 적어도 藥師經을 誦呪하여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성행했다면 약사여래상을 조성하지 않았을 리 없다”(文明大, 앞 논문, p. 29)라고 하여 조심스런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4) 그동안 藥師佛의 持物에 관해서는 藥壺, 藥盒, 藥寶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본 고에서는 藥器라고 하겠다.

먼저 약사신앙을 받아들인 주체세력에 관해서는 다음의 사료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사료 A-1. 『三國遺事』密本摧邪條

善德王이 병이 들어 오래되었는데 興倫寺 僧 法揚이 병을 치료했으나 無效여서 密本이 초청되었다. 이에 密本이 藥師經을 읽자 卷軸이 다하러 할 때 六環杖이 침실에 날아들어가 늙은 여우 한 마리와 法揚을 뜰 밖으로 내던지니 王의 병은 낫고 密本の 정수리에는 五色身光이 발하여 보는 사람을 놀라게 했다.

사료 A-2. 『三國遺事』密本摧邪條

巫覡이 와서 祭를 올렸지만 소용이 없었고, 法流寺 僧이 초청되었으나 惡鬼의 鐵鎚에 맞아 죽고 말았다. 이에 密本이 초청되자 四方에서 金甲長戟을 든 大力神이 나와 惡神을 잡아가고 이어 무수한 天神이 내려와 기다리는 속에 密本이 도착하였는데, 藥師經을 펴기도 전에 병은 이미 나아 있었다.

A-1 사료는 三國遺事 密本摧邪條의 善德女王 치병관계 기사이다. 이 내용은 선덕여왕(632~646)이 병이 나자 興倫寺의 僧 法揚이 못고치는 것을 密本法師가 <藥師經>을 외워 고쳤다는 것이다. A-2 사료는 같은 密本摧邪條의 기록으로 金良圖가 어렸을 때 병이 났는데, 무당과 法流寺의 僧이 실패한 것을 密本法師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다는 내용이다.

앞의 A-1 사료는 약사신앙이 왕실에서 받아들여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선덕왕의 질병 치료에 왕실 사원의 하나였던 흥륜사 승려가 동원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密本이 그의 병을 치료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密本の 선덕왕 치병 사례는 약사신앙을 왕실에서 널리 받아들여지게 된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密本の 신분과 관련해서는 그가 왕실 사원에 거주하고 있지 않았다는 이유와 또한 圓光의 행적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육두품 출신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⁵⁾ 그러나 그의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약사신앙이 신라에 수용되는 데에는 왕실의 역할이 지대했음은 재문의 여지가 없다.

한편 A-2 사료에 의하면, 약사신앙의 유행을 왕실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

5) 金在庚, 「新羅의 密敎收容과 그 性格」, 『新羅彌他淨土思想研究』(民族社, 1988), pp. 298~300.

를 발견할 수 있다. 金良圖가 당나라에 사신으로 간 것을 보면 왕실 측근 세력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런 金良圖의 治病에 기존의 불교 신앙이 法流寺의 僧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고, 密本의 약사신앙으로 가능하였다. 이는 기존의 사상 체계인 토속 신앙의 우위 속에서 그것과 공존하고 있던 불교 사상이 약사신앙의 도움으로 토속 신앙을 능가하는 불교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국왕의 입장에서 약사신앙을 받아들인 흔적은 다음의 사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사료 B-1. 『三國遺事』卷3, 塔像編, 芬皇寺 藥師條

이듬해(경덕왕 14년, 755) 乙未에 芬皇寺의 약사동상을 만들었는데, 무게는 306,700근이요, 匠人은 本彼部 强古乃未였다.⁶⁾

위의 사료 B-1의 내용은 경덕왕 14년인 755년에 芬皇寺의 약사동상을 鑄成하였는데 무게는 30만 6천 7백근이요, 匠人은 本彼部 强古乃未였다는 것이다. B-1 사료에 나타난 것처럼 전제왕권이 강화되었던 경덕왕 대에 당시 왕실 사찰인 분황사에 대형의 藥師佛像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국왕의 입장에서 약사신앙을 받아들인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다.

이렇듯 약사신앙이 국왕을 중심으로 널리 받아들여진 것은 다음의 防禦山 磨崖藥師佛 명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료 C-1. 防禦山 磨崖三尊像 銘文⁷⁾

成人彌刀奈「貞元十七年辛巳三月十六日鴻巖佛」成記 願旨「一父子王又」戰日日彌(弘)「二父母弥又」一切衆生□」

6) ① 文明大, 『韓國彫刻史』(열화당, 1980), p. 203. "현재 이 약사불은 현 분황사 법당에 보존되어 있는데 많이 수정된 것이 확실하지만, 아마도 일부 특히 발이라든가 하체 부분은 원모습이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불상이 대대적으로 수리된 것은 18세기 전반기일 것이지만 과연 언제 대대적으로 수리할 만큼 파괴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남아있는 스타일로 보아 원모습에 방불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여 현재의 불상이 삼국유사 기록의 불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현재 普光殿內的 藥師佛立像 왼손 위에 있는 木造藥器의 뚜껑 裏面에는 朱書로 다음과 같은 명문이 있다. 「乾隆三十九年乙未四月二十五日造成也 重修改金畫員六行瑞弘」(黃壽永編, 『續金石遺文』, 고고미술동인회, 1963, p. 119)

7) 防禦山 磨崖藥師佛像에 관한 명문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書』, 1917, 咸安 上, p. 313 我人彌刀業「貞元十七年辛巳/三月

위의 사료 C-1의 내용은 조성인 彌刀奈가 애장왕 2년인 801년에 큰 바위부처님을 조성하고 父子王과 戡王日弥와 二父母, 그리고 기타 중생들을 어떻게 해 주십사하는 것이다.

이 C-1 사료는 비록 신라말 哀莊王 2年(801)에 기록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에 따르면 磨崖佛을 造成한 彌刀乃未가 온전히 국왕의 입장에 서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 佛像의 조성에는 시대적으로 신라 하대라는 차이와 공간적인 거리를 두고 있으며, 신라 하대라는 혼란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왕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점은 약사신앙이 국왕을 중심으로 수용되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위의 사료 A-1, A-2, B-1, C-1의 검토를 통하여 약사신앙이 국왕 세력들에 의하여 수용되었음을 알아 보았다. 그렇다면 국왕 세력들은 어떠한 의도 속에서 약사신앙을 수용하였을까라는 문제가 있다. 이는 앞의 사료 A-1과 A-2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A-1 사료에서는 흥륜사라고 하는 기존의 불교 기득권 세력들 반열에 약사신앙이 참여한 예이다. 여기에는 아마 기존의 불교 세력들을 억압하려는 국왕의 의도가 개재된 것으로 해석되거나, 아니면 그 결과 불교 기득권 세력들의 위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A-2 사료에서는 토속신앙을 능가하는 새로운 신앙으로 약사신앙이 이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국왕 세력들에 의한 약사신앙의 수용은 기존의 불교 기득권 세력과 토속신앙으로 대표되는 귀족세력을 억압하여 궁극적으로 전제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약사신앙이 유행하게 된 데에는 현재 남아있는 사료를 본다면 처음에는 국왕의 치료와 관련되는 것 같다.

앞에서 언급한 정치적인 이유 이외에도 약사신앙의 유행은 密本의 초기 밀교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도 일조하였을 것이다.

사회적인 문제와 결부해 통일신라 시대에 藥師佛像이 많이 제작되는 원인의 하나로는 疫病

十六日/鴻巖戡/成記△△古/△△王△/△△△△/△△母彌△/△△△

- ② 黃壽永編, 『韓國金石遺文』(일지사, 1976), p. 252에는 成人彌刀奈/貞元十七/年辛巳/三月十六日/鴻巖佛/成記 願旨/□父□不□/□□日弥/二□母弥又/一切衆生□로 되어 있어 ①에서 해석 못하는 몇 자를 더 해독하고 있다.
- ③ 文明大, 「新羅下代 佛教彫刻의 研究(1) -防禦山 및 實相寺 藥師如來巨像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73輯(역사학회, 1977), p. 26. 成人彌刀奈/貞元十七/年辛巳/三月十六日/鴻巖佛/成記 願旨/一父子王又/戡王日弥(弘)/二父母弥又/一切衆生□로 황수영 박사의 판독을 토대로 필자가 다시 拓本하고 판독한 것을 종합하여 실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것에 따라 살펴보겠다.
- ④ 金煥泰, 『三國新羅時代佛教金石文考證』(민족사, 1992), p. 118~119. 여기에서는 『朝鮮金石總覽』, 『韓國金石全文』, 『韓國金石遺文』에 실린 명문을 종합하여 비교 고찰하고 있다.

의 만연을 들 수 있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三國史記의 기록을 보면 800년 경을 전후해서 질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藥師信仰과 疫病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현재 남아있는 藥師佛像이 800년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조성된 사실과도 부합되는 결과라 하겠다. 따라서 신라 하대에 온갖 재난으로 부터 재산과 복덕을 가져다 주고 죽음으로 직결되는 병을 물리쳐 주는 藥師信仰이 유행한 것은 당연하다.

〈표 1〉 三國史記의 질병관계 기사

연 대	수 록 처	내 용
文武王 11년(671)	新羅本紀 第7	…新羅軍 多疫疾…
聖德王 13年(714)	新羅本紀 第8	…夏 旱 人多疾疫…
景德王 6년(747)	新羅本紀 第9	秋 旱 冬 無雪 民饑且疫 出使十道安撫
景德王 14년(755)	新羅本紀 第9	春 穀貴 民饑…
宣德王 6년(785)	新羅本紀 第9	…是月 王寢疾彌留 乃下詔曰…
元聖王 12년(796)	新羅本紀 第10	春 京都飢疫 王發倉廩賑恤之
興德王 8년(833)	新羅本紀 第10	春 國內人飢…冬十月 桃李再華 民多疫死
文聖王 3년(841)	新羅本紀 第11	春 京都疾疫
景文王 7년(867)	新羅本紀 第11	夏五月 京都疫
景文王 10년(870)	新羅本紀 第11	冬無雪 國人多疫
景文王 13년(873)	新羅本紀 第11	春 民饑且疫 王發使賑救

통일신라 하대에 藥師佛像이 많이 조성되는 또다른 이유로는 당시의 혼란한 사회·정치사적인 상황을 들 수 있다. 즉 藥師佛이 신앙되고 藥師佛 조성이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경덕왕 이후 특히 8세기 말에서 9세기 중엽까지인데, 이 시기는 귀족들의 대립 항쟁의 내란기가 계속되어 쟁투의 시대였던 동시에 기근과 재해와 질병이 계속되던 재난의 시대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약사신앙은 널리 유행하게 되었고, 이 시대에 조성된 藥師佛像이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Ⅲ.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조성

1. 형식 분류

1) 藥器의 特徵

藥師佛像의 가장 큰 특징은 手印과 持物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持物인 藥器에 대해 살펴 보면 통일신라 시대의 藥師佛像은 寶珠形 형태와 藥器 형태로 구분된다.

대부분의 藥師佛像은 藥器로 寶珠形의 持物을 가지고 있는데, 이처럼 둥근 寶珠形으로 조성한 원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는 寶珠의 의미로 『大品般若經』第10에 의하면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고 빈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며, 아울러 어떠한 毒도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功德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성질을 갖는 寶珠는 현세구복적 신앙의 성격이 강한 觀音菩薩, 地藏菩薩, 藥師佛의 지물이 되기에 합당하다.⁸⁾ 둘째로는 藥壺나 藥盒을 단순화시킨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⁹⁾

唐의 不空(705~774)에 의해 번역된 『藥師如來念誦儀軌』에 의하면 “왼손에는 藥器를 가는데 이것을 無價珠라고도 한다”라는 것으로 보아 藥師佛 도상이 확립되고 부터는 寶珠形과 藥器形의 지물이 함께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국시대 佛像 가운데 寶珠形 지물을 가진 것을 무조건 藥師佛像으로 보는 데에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겠다.

『藥師如來念誦儀軌』가 번역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통일신라 藥師佛 가운데 藥器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스턴박물관 소장 金銅藥師佛像, 防禦山 磨崖藥師三尊佛像, 상주 증촌리 藥師佛像, 윤을곡 三尊佛像 중 우협시 藥師佛像, 桐華寺 毘盧庵 3층석탑 사리기외 함 선각약사불상,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이 있다. 이 佛像들은 藥器 형태로 약그릇의 뚜껑을 상징하는 선을 그어 藥器임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 8세기 전반까지는 寶珠形의 지물을 가진 藥師佛像이 성행하지만 8세기 후반에 藥師佛 도상이 확립되면서 藥器의 표현도 寶珠形과 함께 구체적인 藥器 표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977년에 제작된 廣州 校里磨崖藥師佛像으로 이어지고 있다.

8) 望月信亨, 『佛敎大辭典』 5, 「如意寶珠」 項, pp. 4132~4133 및 「摩尼」 項, p. 475.

姜友邦, 「寶珠의 思想」, 『美術資料』 24호(국립중앙박물관, 1979), pp. 10~22 참조.

9) 金春實, 앞 논문, p. 1.

2) 手印의 형식

藥師佛像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왼손에 藥器를 올려놓고 있는 手印에 있다. 이런 藥師佛像의 手印은 왼손에 藥器를 올려놓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藥器를 가진 왼손의 위치와 오른손의 手印에 따라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즉 ① 왼손을 허리 부분에서 약간 밖으로 벌려 그 위에 藥器를 올려놓고 오른손은 施無畏印을 짓고 있는 경우(손을 내리고 있는 경우도 있음)를 I 형식, ② 왼손을 배 앞에 놓아 藥器를 올려 놓고 오른손은 施無畏印을 짓고 있는 것을 II 형식, ③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降魔觸地印의 변형인 왼손은 배 앞에 놓아 藥器를 들고, 오른손은 降魔觸地印을 짓고 있는 것을 III 형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I 형식과 II·III 형식은 왼손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I·II 형식과 III 형식은 오른손의 위치와 따라 구분한 것이다.

藥師佛像의 圖像은 唐나라 不空(705~774)이 번역한 『藥師如來念誦儀軌』에 잘 나타나 있다. 여기에 의하면 “중앙에 藥師佛像을 안치하고 왼손에는 藥器를 가지는데 이것을 無價珠라고도 한다. 오른손은 三界印을 짓고 연화좌 위에 앉는다. 대좌 아래에는 12신장을 8만 4천 권속의 上首로써 배치하며 如來의 威光 안에 月光과 日光 두 菩薩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¹⁰⁾

藥師佛像은 이 경전에 나오는 도상을 기본으로 하나 통일신라 藥師佛像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藥器印을 가지기 때문에 형식분류를 통해 藥師佛像의 특징을 고찰해 나가도록 하겠다.

① I 형식

이 형식은 왼손은 허리부분에 두어 藥器를 들고 있고 오른손은 施無畏印 또는 外掌을 하거나, 혹은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을 말한다. 삼국시대 藥師佛像의 오른손 藥器(도 29)가 통일신라 시대에 와서는 왼손 藥器로 바뀌고 있는 점은 藥師佛像의 圖像에 있어 중요한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지금으로서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에서 제외하겠다.

『藥師如來念誦儀軌』에 나타난 오른손의 三界印은 施無畏印을 뜻한다. 따라서 I 형식의 오른손 手印은 『藥師如來念誦儀軌』를 충실히 따른 것으로 모든 병고로 부티의 두려움을 없애준

10) 大定新修大藏經 第19卷, No. 924A, p. 29b.

安中心一藥師如來像如來左手令執藥器, 亦名無價珠, 右手令作結三界印, 一著袈裟結跏趺坐, 令安蓮華臺, 臺下十二神將, 八萬四千眷屬上首, 令又令須蓮臺, 如來威光中令住日光月光二菩薩.

다는 의미에서 藥師佛의 특징을 잘 말해주고 있다.

I 형식에 속하는 佛像은 오른손의 手印에 따라 다시 3가지 형식으로 세분된다. 첫째, 施無畏印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는 金銅藥師佛像 A(도 1), B(도 2), C(도 3), D(도 4), E(도 5), 靑銅藥師佛像(도 6), 백률사 金銅藥師佛像(도 7) 등이 있다. 둘째, 外掌을 하고 있는 것으로 金銅藥師佛像 F(도 8), G(도 9)가 있고, 셋째 오른손을 아래로 내리고 있는 것으로 金銅藥師佛像 H(도 10)가 있다.

I-1형식인 오른손을 施無畏印을 취하고 있는 佛像은 佛衣에 있어 모두 통견을 걸치고 있다. 法衣 안에 승각기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는 금동약사불상 A, E, 한독박물관 소장 청동약사불상, 백률사 금동약사불상이 있다. 금동약사불상 D(도 4)는 왼쪽 어깨에 가사를 묶은 띠매듭을, 백률사 금동약사불상(도 7)은 허리부분에 袈衣 띠매듭을 표현하고 있다. 옷주름은 U자형과 타원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금동약사불상 A, D, 백률사 금동약사불상이 있다.¹¹⁾ 금동약사불상 D와 백률사 금동약사불상의 옷주름은 양 다리의 윤곽을 나타내기 위해 옷주름의 중간 부분이 끊어지고 있어 서로 친연성이 매우 강하다.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는 금동약사불상 B, C, E, 청동약사불상이 있다. 전자에 비해 양 다리의 윤곽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청동약사불상에 이르러서는 9세기의 다른 불상들과 같이 線刻의 기법이 표현되고 있다.

臺座는 仰蓮과 伏蓮으로 이루어진 연화대좌로 백률사 금동약사불상만 대좌가 결실 되었을 뿐 나머지 불상들은 모두 대좌를 갖추고 있다. 금동약사불상 B, D, E의 대좌는 다른 대좌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금동약사불상 B는 맨 밑이 꽃무늬 모양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금동약사불상 D는 연판 안에 꽃무늬가 표현되었다. 금동약사불상 E는 伏蓮으로만 이루어진 연화대좌 상하에 촘촘하게 連珠文이 장식되었다.

I-2형식은 施無畏印의 변형으로 오른손을 外掌하고 있는 것으로 금동약사불상 F(도 8)와 G(도 9)가 있다.¹²⁾ 두 불상 모두 굽은 띠모양의 승각기가 있으며 通肩을 취하고 있다. 옷주름은 F는 U자형이고 G는 타원형인데 전자는 흘러내린 옷자락을 왼 손목 위로 넘기고 있다. 금동약사불상 F는 당초문이 새겨진 透造 광배와 대좌까지 갖추고 있는 완전한 불상이다. 광

11) 東國大學校 博物館, 『遺物調査書』, pp. 89~90에 대웅전에 안치한 銅造藥師如來立像을 소화 2년(1927)에 옮겼다는 기록이 있다. 이 불상은 처음 백률사에서 경주박물관으로 옮길 때는 藥師佛 手印이 남아 있었으나 현재는 손이 결실된 채 진열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불상은 藥師佛로 생각되며 현재 남아있는 형태로 보아 施無畏印을 하고 있지 않았나 추정된다.

12) 금동약사불상 G의 왼손에는 현재 藥器가 없으나 손바닥이 움푹 파여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당시에는 藥器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에는 금동약사불상 D의 대좌와 같은 꽃무늬가 표현되었다.

I-3형식은 오른손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금동약사불상 H(도 10)가 있다. 이 불상은 하대신라 金銅佛의 대표작으로, 양 팔에 걸쳐진 세로의 지그재그 옷주름은 감산사아미타불(도 27)이나 掘佛寺址 서면 불상 등에서 발달된 것이며, U자형의 촘촘한 물결식 옷주름의 날카로운 선 등은 새로운 수법으로 현실화가 크게 진전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I 형식의 佛像들은 몇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 모두 金銅佛로 조성되었으며, 둘째 배를 약간 앞으로 내밀어 당당함을 느끼게 하는 立像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세째 法衣는 通肩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佛像이 가슴에 승각기를 표현하고 있다.

② II형식

II형식에 속하는 佛像은 왼손은 배 앞에서 藥器를 들고 있으며, 오른손은 가슴 높이로 들어 施無畏印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坐像 뿐만 아니라 立像에서도 표현되고 있는데 이와같은 형식의 藥師佛坐像은 대체로 8세기 전반 내지 중엽경 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통일신라 후기에는 降魔觸地印과 智拳印 佛像도상과 함께 藥師佛像 手印의 佛像형식도 유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은 高麗·朝鮮으로 이어지고 있다.

II형식의 佛像은 四方佛, 三尊佛, 獨尊佛 형식으로 세분된다.

II-1형식인 四方佛에 속하는 佛像으로는 掘佛寺址 佛像, 七佛庵 佛像이 있다. 四方佛에서 東面에 藥師佛像을 조성한 것은 당시에 유행한 약사신앙의 한 단면을 드러내 주는 것이지만, 그동안 四方佛 연구에 있어서 명칭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¹³⁾

13) 그동안 발표된 사방불에 관한 논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① 文明大, 「百濟四方佛의 起源과 禮山石柱四方佛像의 研究 -四方佛研究 3-, 『韓國佛教美術史論』(民族社, 1987), pp. 37~71.
- ② 大西修也, 「百濟佛再考-新發見의百濟石佛と偏衫を着用した服制をめぐって, 『佛教藝術』 149호 (1983), pp. 11~26. ①과 ②는 사방불의 명칭 보다는 백제불상의 佛衣를 주요 논점으로 삼고 있다.
- ③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南山塔谷磨崖佛)의 四方佛 - 新羅四方佛研究 1-, 『韓國史研究』 18(1977), pp. 47~49. 이 논문은 四方佛을 수용한 사상과 종파를 알기 위해 사방불의 이름을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방불의 명칭은 중국의 경우 대개 7세기 전반까지는 『金光明經』이나 『觀佛三昧海經』에 나타나는데, 이 經의 사방불은 東에 阿閼, 西에 無量壽, 南에 寶相, 北에 微妙聲이다. 따라서 문명대 교수는 관불삼매해경과 관련하여 北方과 西方의 불상명칭을 상정하고 있으며(pp.72~73), 신인사가 그 명칭이 확실하다면 神印宗 사찰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일제 때 경주 남산 불적을 조사할 당시에 발견한 기와에 “神印寺”라는 명문이 새겨진 것을 확인한 결과 신인종에서 만든 사찰이라고 해 신인종과 신인사 사방불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 ④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展開와 七佛庵 佛像彫刻의 研究 -四方佛研究 2-, 『美術資料』 27(국립중앙박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四方佛의 조성은 東西南北의 四方淨土에 거주하는 四佛信仰을 의미하는 것으로 所依經典에 의거하여 조성되었을 것이나, 경전마다 四方佛의 尊名이 제각기 달라서 어느 경전에 의해서 四方佛이 조성되었는지 분간하기는 어렵고 실제로 조성된 사방불의 도상 역시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四方佛에 있어 東面に 藥師佛像을 안치한 것과 연관 있는 경전으로는 孔雀王呪經이 있다. 이 경전에 의하면 東에는 藥師琉璃光, 西에는 無量壽, 南에는 定方, 北에는 七寶堂을 배치한다. 그렇지만 掘佛寺址 四方佛과 七佛庵 四方佛은 東面に 약사불을 배치한 점은 같지만, 나머지 면들에 배치된 佛像들의 존명은 명확히 할 수 없다. 따라서 四方佛의 도상이 어느 경전에 기반을 두고 발전해 갔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결국 통일신라 시대에 四方佛像에서 東面に 藥師佛像을 배치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약사신앙이 유행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좋은 증거라고 할 수 있다.

掘佛寺址 사면석불(도 11, 11-1)은 다양한 佛像을 갖가지 형식과 다양한 기법으로 조성하고 있다.¹⁴⁾ 七佛庵 佛像(도 12, 12-1)은 8세기 중엽부터 四方佛이 五方佛로 변하는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佛像이다. 중국에서는 4세기 부터 계속 四方佛로 고정된 방위불이 8세기 초에 번역된 不空絹索神變眞言經이나 一字佛頂輪王經 등에서는 오방불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전에 의해서 처음으로 조형화된 오방불이 七佛庵 오방불로 생각된다.¹⁵⁾

물관, 1980), pp.1~23. 이 글에서는 東에 藥師佛, 西에 阿彌他佛, 南에 寶生佛, 北에 世間王佛을 배치한 것으로 보고 있어 不空絹索神變眞言經의 설을 따르고 있다.

⑤ 金理那, 「慶州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 『震檀學報』 39호(1975), pp. 43~68, 『韓國古代彫刻史研究』(일조각, 1989), pp. 239~268에 재수록. 이 글에서는 東에 藥師佛, 西에 阿彌他佛, 南에 釋迦如來, 北에 彌勒菩薩로 보고 있다.

⑥ 金吉雄, 「慶州 南山 塔谷彫像群에 대하여」, 『新羅文化』 5輯, pp.129~160.

14) 이 굴불사지 사면석불에 대해서는 金理那 교수의 앞 논문에서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다. 김리나 교수는 이 논문에서 “동방에 藥師佛이 오는 經典으로는 상기한 孔雀王呪經으로 四方佛 중 西方과 東方佛의 명칭과 일치하나 南·北面의 像을 신앙의 대상에서 흔히 나타나지 않는 定方佛 七寶堂佛로 추정하기에는 여러가지 난점이 있다. 특히 北面에는 如來像은 보이지 않고 浮彫菩薩像이 있으며 그 옆에 있는 線刻菩薩像은 11面 6臂의 觀音像으로 밝혀졌으니 결국 이 四面佛이 孔雀王呪經에 의거하지 않는 것이 확실해진다(p. 243)”고 하여 굴불사지 사면석불이 孔雀王呪經에 의거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掘佛寺址의 四面石佛은 어느 일정한 경전에 의거하여 四方佛淨土를 彫現하였다기 보다는 당시 신라의 顯教佛敎思想에서 널리 信仰되었던 四方佛 즉 西方의 極樂淨土往生을 기약하는 阿彌他佛의 三尊이, 南面에는 現 娑婆世界的 教主인 釋迦牟尼佛의 三尊이, 東面에는 인간을 病苦에서 수호해 주는 琉璃光淨土의 藥師如來像이 그리고 北面에는 未來佛로서 현재 兜率天에서 待機 중인 미륵보살과 變化觀音의 일종인 11面 6臂의 觀音菩薩이 각기 彫像되었다”고(p. 265) 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南面과 北面의 불상을 釋迦佛과 彌勒佛로 보는 것은 좀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15)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展開와 七佛庵 佛像彫刻의 研究 -四方佛研究 2-」, 『美術資料』 27(국립중앙박물관

사방불의 東面에 표현된 약사불상은 모두 좌상으로 掘佛寺址 藥師佛像(도 11)은 마멸이 심하여 옷주름의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칠불암 藥師佛像(도 12)은 통견을 하고 가슴에는 승각기를 표현하고 있다. 전자는 吉祥坐이나 후자는 연화좌 위에 降魔坐를 하고 있다. 광배는 전자가 원형의 전신 광배인 것과 달리 후자는 보주형의 두광을 하고 있다.

II-2형식은 藥師佛像의 협시인 日光과 月光菩薩을 표현한 삼존불이다. 여기에 속하는 佛像으로는 防禦山 磨崖藥師三尊佛(도 13), 蔚州 於勿里磨崖藥師三尊佛(도 14), 桐華寺 毘盧庵 3층석탑 사리기 외함 선각약사불상(도 15)이 있다.¹⁶⁾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상, 동화사 비로암 3층석탑 사리기외함 선각 약사불상은 명문을 가지고 있다. 전자는 右協侍 옆에 801년이라는 조성연대와 조성인, 발원 내용이 있으며, 후자는 863년이라는 절대 연대를 가지고 있어 藥師佛 도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본존불에 대해 살펴 보면 방어산 불상은 立像이고 어물리 불상과 동화사 사리기 선각 불상은 坐像이다. 어물리 불상은 마멸이 심하여 옷주름을 잘 알 수 없으나 방어산 불상과 동화사 불상은 모두 통견을 하고 있다. 방어산 불상과 동화사 불상은 대좌를 갖추고 있는데 전자는 양·복련으로 이루어진 연화좌를, 후자는 상·중·하대를 모두 갖춘 8각 연화대좌이다. 또한 방어산 불상, 동화사 불상은 藥器에 線을 그어 약그릇 입을 표현하고 있다.

협시인 日光과 月光菩薩의 형태를 살펴보면 먼저 방어산 불상과 동화사 불상의 협시는 어물리 불상의 협시가 정면관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본존을 향한 측면관을 하고 있다. 또한 방어산 불상의 우협시와 동화사 불상의 협시가 合掌印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방어산 불

관, 1980). "만약 칠불암 본존불이 이들 경전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라면 降魔觸地印을 짓고 있기 때문에 阿彌他佛이 아니라 釋迦佛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五方佛의 出現은 專制王權을 확립한 경덕왕대 즈음에 이루어진 것은, 오방불은 五岳思想에서 다소 영향을 받았을 것이지만 전제왕권을 상징하는 佛의 조성(p.20)"이라고 결론 짓고 있다.

16) ① 黃壽永, 「新羅敏哀大王 石塔記」, 『史學志』 3집(1967), pp. 53~86.

② 金理那, 「統一新羅時代 藥師如來坐像의 한 類型」, 『佛敎美術』 11(동국대학교 박물관, 1992), pp. 91~103. "西方的 불좌상은 각기 合掌印을 한 두 협시 보살상과 같이 표현되었는데, 그 중에 智拳印을 하고 寶冠을 쓴 毘盧遮那佛은 函 모서리의 연결 부분을 맞추어 보면 北측에 배치되며 향마촉지인 상은 동쪽에, 약함을 든 약사여래상은 남쪽으로 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 약함을 든 상이 金剛界 四方佛의 南方佛인 寶幢如來로 추정되었으나 이것이 당시 신라인들의 자율적인 배치인지 아니면 인식부족인지 또는 추정이 잘못되었는지, 이 시대의 四方佛 개념에서 차지하는 약사여래의 圖像과 그 위치에 대하여는 좀더 구체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p. 99)"고 하여 "추정이 잘못되었는지"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리함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을 확실하게 東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어 본 논문에서는 三尊佛의 범주에 넣었다.

③ 국립중앙박물관, 『佛舍利莊嚴』, 1991. 도 20. pp. 51 도판 참조.

상의 좌협사와 어물리 불상의 협시는 가슴 높이까지 손을 들고 있다.

協侍 보살상의 보관을 보면 방어산 불상은 보관을 썼다기 보다는 머리를 올려 묶은 형상을 하고 있고 눈썹 사이에日光과月光을 표현하고 있다.¹⁷⁾ 어물리 불상의 협시는 방어산 불상의 보살상과는 달리寶冠을 썼으며 보관의 중앙과 그 위에 해와 달을 상징하는 둥근 원이 표현되어 있어 마치 조선시대 약사전에 봉안된 약사삼존의 좌우보살상의 보관에 표시된 해와 달을 연상시키고 있다.¹⁸⁾ 동화사 불상의 좌협시 보살상은 방어산 불상의 협시처럼 타래머리 형태를 하고 원형의 두광 안에 둥근 해와 반달 모양을 달을 표현하고 있다. 방어산 불상이나 어물리 불상과는 달리 우협시가 일광보살이고 좌협시가 월광보살이다.

Ⅱ-3형식은獨尊佛像으로 경주 보리사佛像 광배 배면에 새겨진藥師佛像(도 16, 16-1, 16-2), 傳 開仙寺址 藥師佛像(도 17)이 있다. 전자는四方佛에 표현된藥師佛像과 유사한 기법으로坐像인데 비해 후자는立像이다. 보리사 불상 광배 배면 약사불상은 통견으로 가슴은 승각기로 가리고 있으나 전 개선사지 약사불상은마멸이 심하여 알아 보기 힘들다. 보리사 광배 배면 약사불상은 칠불암 약사불상 처럼 양·복련의 연화대좌 위에 앉아 있으며全身光으로 광배 테두리는 불꽃 무늬로 장식하고 있다. 보리사佛像 광배 배면에 약사불상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四方佛의東面に藥師佛像을 배치하고 있는 것과 함께 당시 약사신앙의 유행을 암시하는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Ⅱ형식佛像의 특징은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Ⅰ형식과는 달리石佛像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둘째, 자세에 있어立像보다는坐像이 대부분이다. 셋째,法衣는 모두通肩을 취하고 있다. 넷째, 사방불에 있어東面に 약사불상을 배치하는 도상과, 협시인日光과月光菩薩이 삼존불로 표현되고 있어 우리나라 약사불 도상을 고찰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7) 文明大, 「新羅下代 佛教彫刻의 研究(1) -防禦山 및 寶相寺 藥師如來巨像을 中心으로-, 『歷史學報』 73 輯(역사학회, 1977). 여기에서 문명대 교수는 일광 보살에 대해 “눈썹이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고 코나 입의 텃치도 굽어서 강렬한 인상의 남성적 얼굴이다. 이것은 이마에 일광의 표시를 새긴 것과 함께日光의 햇빛을 상징하는 모습 그대로 인 것 같다”(p. 10)고 했다. 또한 월광보살에 대해서는 “눈썹 사이의 이마에 일광보살처럼 둥근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월광보살을 상징하는 달무늬 입이 분명하다. 해무늬보다도 작고 불상의 백호와 같은 크기인 3×5.5cm이다. 여기서도 해와 달의 차이를 느끼게 한다”(p. 12)고 하여日光과月光菩薩의 구분을 인상에서 구분하고 있다.

18) ① 『考古美術』 105호(한국미술사학회, 1970.3) 권두 사진 및 p. 28 고고미술 뉴스.

② 金吉雄, 「於勿里 磨崖藥師三尊像에 관한 考察」, 『東國史學』 제2집(동국사학회, 1992), p. 64.

③ III형식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특징은 오른손은 降魔觸地印을 하고, 왼손에는 藥器를 올려놓은 III형식에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독특한 手印에 대해서는 두 가지 說이 있는데 그 하나는 降魔觸地印 수용을 新羅佛像 圖像 발전의 특수성으로 보는 견해이다.¹⁹⁾ 다른 하나는 석가의 降魔觸地印에서 힌트를 얻어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手印으로 정착시켰다고 보는 견해이다.²⁰⁾ 본 논문에서는 후자의 설을 따르는데 그 이유로는 『藥師如來本願功德經』의 내용처럼 藥師佛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병환이 치유되고 번뇌가 고갈되는 까닭에 한 손은 마군이나 병마를 격파하고, 한손에는 약을 가지고 병환을 치유하는 것을 수인으로 나타내는 것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석가불이 깨달았을 때 마군을 항복받는 것이나 藥師佛이 병마를 항복받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석가불이 짓는 降魔觸地印을 藥師佛에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오히려 降魔觸地印의 유행이 약사신앙의 유행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하는 가정을 낳게 한다.

이 III형식에 속하는 佛像은 모두 좌상으로 佛衣의 표현에 있어 右肩偏袒과 通肩으로 세부 형식을 나눌 수 있다.

III-1형식인 우견편단의 佛像으로는 苒長溪 藥師佛像(도 18), 八公山 磨崖藥師佛像(도 19),²¹⁾ 단성 藥師佛像(도 20), 無鳳寺 佛像 광배 배면 藥師佛像(도 21, 21-1),²²⁾ 남산 윤을곡 마애삼존불 중 우협시 佛像(도 22)이 있다.²³⁾

右肩偏袒의 이 불상들은 착의법 때문인지 어깨가 비대해 보인다. 마애불인 팔공산 불상과

19) 金理那, 「統一新羅時代의 降魔觸地印佛坐像」, 『韓國古代佛教彫刻史研究』(일조각, 1988), pp. 339~340에서 降魔觸地印型의 불상은 成道한 부처가 應身佛인 釋迦世尊의 성격을 초월하여 더 넓은 의미의 깨달음의 상징체계로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는 가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降魔觸地印佛坐像이 신라에서 조성, 유행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편성을 띤 하나의 佛坐像型으로 수용·발전되어 阿彌他佛像으로 표현되거나 또는 藥盒이 놓여있음으로 藥師佛로 될 수 있는 圖像의 근거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20) 文明大, 『慶州南山佛像實測調査研究』(한국미술사연구소, 1989), pp. 97~106 참조.

21) 이 불상은 八公山의 主峰(1193m)에 가까운 上峰이기 때문에 인적이 드물어 초행자가 찾기는 어렵다. 이 불상에 대해서는 鄭永鎬, 「八公山 上峰의 磨崖如來坐像」, 『考古美術』 56·57합집호, pp. 55~56에서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22) 鄭永鎬, 「密陽無鳳寺의 石造光背와 石佛坐像」, 『考古美術』 통권 19·20호(한국미술사학회, 1962, 2·3월호). 鄭永鎬 교수는 이 글에서 남산 미륵곡 불상 배면에 새겨진 약사불상과 거의 동시대라 추정하고 있으나 미륵곡 불상 보다 시대가 떨어지는 작품으로 보인다.

23) 이 불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文明大, 「慶州南山 潤乙谷 太和九年銘 磨崖三尊佛像의 研究」, 『孫寶基博士停年紀念 考古人類學論叢』(지

윤을곡 불상은 양·복련으로 된 연화대좌이며 환조상인 용장계 불상과 단성 불상은 8각 연화대좌이다. 용장계 불상의 대좌에는 연판 안에 광배에 있는 것과 같은 꽃무늬가 표현되었고 단성 불상은 9세기 불상 대좌의 특징인 장식성이 가미되고 있다. 광배는 무봉사 불상 광배 배면불을 제외한 불상 모두 全身 光背이나 광배 마다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용장계 불상은 당초문이 뾰뾰하게 장식되어 화려함의 극치를 달하고 있으며, 단성 불상은 파손이 심하지만 광배 하단에 공양자상이 부조되어 있다. 윤을곡 불상은 9세기 불상의 특징으로 나타나는 띠광배를 하고 있어 시대의 하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Ⅲ-2형식인 通肩을 한 佛像으로는 삼릉계 藥師佛像(도 23), 경주박물관 소장 분황사 출토 藥師佛像(도 24), 상주 증촌리 藥師佛像(도 25),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도 26)이 있다.

Ⅲ-2 불상은 모두 통견의 착의법을 하고 있지만 세부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모습을 취하고 있다. 삼릉계 불상의 옷깃은 왼쪽 어깨에서 반전되었으며 오른쪽 어깨를 흘러내린 옷깃은 무릎 위에까지 V형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반면에 분황사 출토 불상은 승각기로 가슴을 가리고 왼쪽 어깨에 띠매듭을 표현하여 그 자락이 오른쪽 팔 위에까지 흘러내리고 있다. 상주 증촌리 불상은 세라복 형식의 通肩으로 넓게 가슴을 드러내고 있으며 무릎 앞에 몰린 옷주름은 석굴암 불상을 계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양 연당동 불상은 V자로 파여진 가슴을 승각기로 가리고 그 위에 띠매듭을 표현하고 있다. 물결식 옷주름은 선각으로 바뀌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섬약한 느낌을 준다.

삼릉계 약사불상만이 광배를 갖추고 있는데 2條線으로 구분된 頭光과 身光에는 化佛이 있고 광배 바깥 테두리에는 불꽃 무늬가 새겨져 있다. 대좌는 분황사 출토 불상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중·하대를 갖춘 8각 연화대좌를 갖추고 있다.

Ⅲ형식에 속하는 佛像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는 Ⅱ형식과 마찬가지로 石佛像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으며 둘째는 자세에 있어서 坐像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降魔觸地印의 手印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手印이기 때문에 立像은 불가능 했을 것이다. 셋째 佛衣는 通肩과 右肩偏袒이 혼재하며, 넷째 手印에 있어 降魔觸地印의 변형인 藥器印이 정착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식산업사, 1988), pp. 689~704. 문명대 교수는 이 논문에서 三佛 形式을 三世佛 즉 본존은 석가불, 우협시는 약사불, 좌협시는 미륵불로 보고 있다(pp. 701~702). 협시인 두 불상이 모두 보주 형태를 지물을 들고 있으나, 탁본 사진을 보면 우협시의 지물은 보주가 아니라 藥器 형태를 나타내고 있고, 좌협시는 연봉을 간략화시킨 지물을 들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협시 불상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양식변천

앞에서 살펴본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형식적 특징을 기초로 여기에서는 양식적 변천을 중대신라(650~775)와 하대신라(776~900)로 나누어 고찰하도록 하겠다.²⁴⁾

1) 중대신라(650~775년)

이 시기에 속하는 藥師佛像으로는 金銅藥師佛像 A, B, C, 掘佛寺址 東面 藥師佛像, 남산보리사 佛像 배면 藥師佛像, 용장계 藥師佛像, 七佛庵 東面 藥師佛像, 삼릉계 藥師佛像 등이다.

이 시기의 이른 시기에 속하는 金銅藥師佛像 A(도 1)는 높은 육계와 얼굴의 온화한 미소, 큼직한 손, 땅딸막한 체구 등에 전 시대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게 남아있다.

金銅藥師佛像 B(도 2)는 金銅佛像의 출토지가 대부분 불분명한데 비해 慶南 陝川郡 佳會面 屯內里 靈岩寺址로 출토지를 알 수 있어 중요하다. 이 寺址는 1985년 동아대학교 발굴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이 때에 金銅佛立像(도 27)이 출토되어 서로 간의 양식비교를 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이 佛像은 얼굴 표정이 金銅藥師佛像 A와는 달리 근엄하며 당당한 어깨와 볼륨감을 표현한 신체 굴곡에서 당시 唐에서 유입된 사실주의 양식을 느낄 수 있다. 가슴을 드러내지 않은 인도식 通肩 착의법은 배 앞에는 반원형의 주름을 표현하고 양 다리에는 좌우대칭적인 타원형을 이루고 무릎에서 V자형으로 끝나고 있다. 이러한 착의법은 甘山寺 阿彌他佛像(도 28)에서 절정을 이루지만 이 佛像은 아직 甘山寺 佛像과 같이 몸에 밀착된 육감적인 표현으로 까지 진전된 양식은 아니다.

唐의 사실주의 양식은 金銅藥師佛像 C(도 3)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즉 이 佛像은 신체는 힘차면서도 당당해 보이며 古式에서 벗어나 唐의 사실주의 양식이 정착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양다리에는 金銅藥師佛像 B와 같이 좌우대칭으로 타원형 주름을 새기고 다시 양다리 사이에 지그재그식 옷주름을 표현해 보다 진전된 양식임을 알 수 있다.

24) 이 논문에서는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시대구분을 제1기는 650~700, 제2기는 700~775, 제3기는 776~850년, 제4기는 850~900년으로 보는 文明大교수의 4분기설(文明大, 『韓國彫刻史』, 열화당, 1980, pp. 157~251)을 적용시키기에는 약사불상의 수가 적기 때문에 크게 중대신라(650~775)와 하대신라(776~900)로 구분한 2분기설을 따르기로 하겠다.

金銅으로 조성된 소형의 藥師佛像이 개인 치병 및 구복적인 신앙 차원이었다면 석조로 조성된 대형의 藥師佛像은 국가적인 차원으로 약사신앙이 확대된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호국적인 사상으로 이어졌으리란 추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佛像으로 掘佛寺址 東面 藥師佛像(도 11)이 있다. 東面에 새겨진 이 藥師佛像은 풍만한 얼굴 모습과 당당한 어깨, 육감적인 신체에서 唐의 양식을 느낄 수 있다. 오른손은 마멸이 심하여 거의 알아 볼 수 없지만 들어 施無畏印을 짓고 있는 것 같고 왼손에는 藥器를 올려놓고 있다. 이러한 手印은 미륵굴 佛像 광배 배면 藥師佛像과 남산 七佛庵 東面 藥師佛像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東面 藥師佛像은 몇 가닥 線으로 간신히 표현한 옷주름과 함께 신체의 명료성이 새로운 양식임을 보여준다.²⁵⁾

掘佛寺址 東面 藥師佛像과는 달리 단독의 석불좌상이 이 시기에 많이 만들어 지는데 이 가운데 남산 보리사 불상 광배 배면 약사불상(도 16, 16-1)은 甘山寺 佛像보다 훨씬 진전된 양식이다. 얼굴은 마멸이 심하여 잘 알아 볼 수 없지만 남아있는 윤곽에서 풍만함을 느낄 수 있다. 통견의 착의법과 소박하게 표현한 仰蓮의 연꽃 대좌는 七佛庵 東面 藥師佛像과 유사하다. 또한 광배의 바깥 테두리에 표현된 불꽃 무늬는 甘山寺 阿彌他佛像을 이어받고 있다.

용장계 藥師佛像(도 18)은 미륵굴 佛像이 通肩의 佛衣를 입고 있는 것과는 달리 右肩偏袒이다. 이 佛像은 右肩偏袒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젖가슴이 유난히 발달되어 보이고 어깨도 견장하며, 옆구리의 옷주름이 갈빗대 같이 강건하게 표현되었다. 얼굴은 살이 찌서 금방이라도 함박 웃음을 터트릴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광배의 꽃무늬는 보리사 佛像(도 16-2), 甘山寺 阿彌他佛像(도 28), 영주 석불입상과 같다. 또한 광배 전체의 화려한 당초문양은 대부분의 佛像들이 바깥 테두리에 불꽃무늬를 장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광배의 꽃무늬 장식은 대좌의 仰蓮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掘佛寺址 남면 불입상 대좌를 계승한 것이다.

경주 남산의 七佛庵 佛像(도 12, 12-1)은 사실주의 양식 계열을 따르고 있는 가장 유명한 佛像郡이다. 서쪽 바위에 三尊佛을 조각하고 그 앞의 사각형 돌기둥에 각각 佛像 1구씩을 浮彫로 새기고 있다. 서쪽 삼존상은 이 佛像들의 중심인 중앙불에 해당되며 사면불은 동서남북을 상징하는 四方佛로 생각된다. 東面에 새겨진 藥師佛像(도 12)은 본존불과는 달리 通肩의 佛衣를 입고 있으며 넓게 파여진 가슴을 승가기로 가리고 있다. 양 팔과 무릎에 표현된 옷주름은 생동감이 넘치고 무릎 아래의 옷주름은 지그재그를 규칙적으로 처리했다. 이것은

25) 文明大, 「韓國彫刻史」(열화당, 1980), p. 198 참조.

용장사지 佛像 상현좌의 옷주름 양식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佛像에서 특이한 것은 結跏趺坐한 앉음새로 대부분 佛像이 吉祥坐인 것과 달리 降魔坐이다.

七佛庵 佛像보다 조금 시대가 내려오는 것으로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삼릉계 藥師佛像(도 23)을 들 수 있다. 이 佛像의 얼굴 표정에서는 여전히 이상적인 佛性을 나타내고 있는 인자함을 느낄 수 있으나 어깨를 약간 움추리고 있는 것 같다.

앞에서 살펴본 중대신라의 藥師佛像의 양식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盛唐양식과 인도 굽타양식을 기반으로 하여 신라화시킨 사실주의 양식이 유행하고 있다. 둘째, 佛衣의 표현에 있어서는 右肩偏袒 보다는 通肩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金銅藥師佛像에서는 U자형 옷주름이 가슴에서부터 양 다리로 내려오는 것, 소위 우전왕상식과 가슴 앞에는 U자형, 양 다리 위에는 좌우 대칭적인 타원형 주름을 표현한 우다야나식상 양식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하대 신라의 金銅藥師佛像에도 이어지는 것이지만 아직까지는 옷주름 표현이 線刻으로 까지 나아가지는 않고 있다. 넷째, 石造藥師佛像에서는 U자형 주름과 평행계단식 옷주름이 공존하고 있다. 다섯째, 金銅藥師佛像의 대좌는 仰·伏蓮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것이지만 石造藥師佛像에 있어서는 8각 연화대좌가 주류를 이루며 용장계 藥師佛像이 仰蓮 안에 꽃무늬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2) 하대신라(776~900)

이 시대 조각으로서 연대가 명확한 것은 김유신 묘 12지상(778년),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801년), 仁陽寺 碑像(810년), 윤을곡 三尊佛像(835년), 동화사 비로암 3층석탑 사리기 외함 선각사방불상(863년),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889년) 등이다. 이 조각들은 이상화된 사실주의 양식이 한편으로는 상당히 남아있지만 새로운 경향인 현실적, 또는 도식적 경향도 새롭게 대두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藥師佛像은 이 시대에 조성되고 있다.

이 시기에 속하는 藥師佛像은 金銅藥師佛像 D, E, F, G, H, 백률사 金銅藥師佛像,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靑銅藥師佛像, 남산 오산골 藥師佛像, 팔공산 上峰 磨崖藥師佛像, 防禦山 磨崖藥師三尊佛像(801년), 어물리 마애약사삼존불, 상주 증촌리 藥師佛像, 분황사출토 藥師佛像, 무봉사 광배 배면 藥師佛像, 남산 윤을곡 마애삼존불상(835년), 단성 藥師佛像, 桐華寺 毘盧庵 3층석탑 사리기외함 線刻藥師佛像(863년),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889년) 등이다. 어느 시기 보다도 이 시기에 많은 藥師佛像이 조성되는 것은 당시의 혼란한 사회적 상황을 藥師信仰으로 극복하려고 하고 있음을 대변해 준다고 하겠다.

이 시기에도 金銅佛像이 많이 조성되는데 金銅藥師佛像 H(도 10)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佛像은 둥글고 탄력있지만 근엄해진 얼굴, 날카로워진 눈과 코, 당당하고 건장하지만 좀 둔중해진 듯한 신체 등이 석굴암 佛像에서 더 진진된 양식이다. 또한 양팔에 걸쳐진 지그재그식 옷주름은 甘山寺佛이나 굴불사지 서면 佛像 등에서 발달된 것이며, U형의 촘촘한 물결식 옷주름의 날카로운 선 등은 새로운 수법으로 현실화가 크게 진진된 것이다. 이 佛像과 달리 金銅藥師佛像 E(도 5, 5-1), G(도 9)는 다시 얼굴부분이 신체에 비해 커지지만, 어깨는 여전히 당당함이 있어 사실주의 양식이 점차 현실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金銅藥師佛像 E는 伏蓮의 연화좌 위에서 있는데 이 대좌는 伏蓮 안에 귀꽃의 문양이 있으며 연주문이 상하로 둘러져 있다. 또한 대좌를 뒤집어 보면 그 안에 金剛杵가 새겨져 있다(도 5-1). 이것으로 보아 이 佛像은 병으로부터 해탈과 佛法 수호의 의미를 가진 金剛杵가 함께 표현되어 약사신앙의 유행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金銅藥師佛像 D(도 4)는 보스톤 박물관에 소장된 통일신라 시대의 훌륭한 金銅佛像 중 하나이다. 통견으로 걸친 法衣 자락은 물결 모양의 층단식 옷주름으로 이어지는데, 이 옷주름은 한 단씩 걸러 주름선을 가운데에서 끊어 두 다리의 윤곽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백률사 金銅藥師佛像(도 7)의 佛衣로 이어지며, 맨 바깥에 걸친 불의가 윈 어깨 앞에서 띠와 고리로 묶여 있는 점이 이채롭다. 대좌는 양련과 복련이 맞붙은 형식으로 폭이 넓은 연판안에 꽃무늬를 장식하고 있는 것은 용장계 藥師佛像를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金銅藥師佛像 보다는 시대가 내려오는 분황사출토 藥師佛像(도 24)은 어깨와 가슴은 당당하고 힘차 보이지만, 옷주름선이 도식적인 평행 계단식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8세기 말에서 9세기 초엽으로 접어들면서 평행계단식 주름이 도식화 경향을 띠는 흐름을 나타내 주고 있다.

신라 하대로 들어오면서 線刻으로 된 대형의 마애불이 조성되는데 경주 남산 삼릉계 線刻肉尊佛은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線刻佛이다. 삼릉계 磨崖線刻六尊佛을 시초로 고부조의 마애불상이 차츰 線刻이나 얇은 浮彫의 마애불상으로 바뀌는데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도 13)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佛像은 형태면에서는 현실적인 장대성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것은 강건하다든가 긴장감이 넘치는 것이 아니며, 처진 듯한 둥근 어깨, 밋밋한 가슴, 현실적인 손 등에서 잘 알 수 있다. 일광보살의 강렬한 인상과 월광보살의 우아하고 온화한 인상 등에서는 삼릉계 선각 보살상들과 직결되는 이상주의 작풍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현실주의로의 진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⁶⁾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 보다 약간 시대가 내려오는 팔공산 磨崖藥師佛像(도 19)은 가흥리 마애불상이나 봉화 북지리 마애불상 처럼 고부조는 아니나 여전히 어깨와 가슴에서 당당함을 느낄 수 있다. 즉 이 佛像은 8세기 후반을 지나면서 마애불상이 고부조에서 저부조나 線刻으로 변하는 과정을 알려주는 과도기에 있다. 이 佛像과 함께 마애불이 저부조나 線刻으로 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불상은 울주 어물리 마애약사삼존불(도 14)이다. 이 佛像은 화강암이 아닌 사암제여서 마멸이 심하며 얼굴은 꽤 고부조이나 신체로 내려오면서 점차 저부조로 바뀌고 있어 시대의 하강을 알려준다. 이와 비슷한 저부조상으로 경주 남산 전 개선사지 藥師佛像(도 17)이 있는데 발꿈치를 맞대고 있는 모습은 방어산 마애약사삼존불 본존상과 비슷하다.

상주 증촌리 藥師佛像(도 25)은 옷자락이 양 어깨에서 가슴을 가로질러 연속된 반원형 주름을 형성하는 인도식 착의법을 하고 있다. 이와같은 표현은 甘山寺 阿彌他佛像이나 雁鴨池 板佛에서 보이는 것과 같지만 이 보다는 더 깊게 가슴을 파고 있다. 한편 두 다리 위에 밀착되게 표현된 옷주름선이 가운데로 몰리는 점과, 두 다리 사이의 대좌 위에 표현된 부채꼴 주름은 석굴암 본존상의 영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당당한 가슴의 표현으로 인해 허리는 더욱 잘쭉해 보이는데, 이것은 광주 藥師庵의 석조불상과 유사하다. 그러나 딱 벌어진 어깨와 유난히 강조된 가슴은 앞 시대와는 다른 것으로 이상적 사실주의에서 쇠퇴한 도식적인 경향이다.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을 전후 해서 많은 藥師佛이 조성되었을 것인데 한독의약박물관 소장 靑銅藥師佛像(도 6)은 그 잔영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즉 양다리의 좌우 대칭적 타원형 옷주름은 線刻으로 표현되어 線刻기법이 마애불상 뿐만 아니라 金銅佛像에도 나타나고 있다. 防禦山 磨崖藥師三尊佛像 계통의 조각양식은 원성왕릉(掛陵) 文武官石像 및 12지상과 仁陽寺 碑像으로 이어지다가 진전되어 백률사 金銅藥師佛像으로 변모된다.

백률사 金銅藥師佛像(도 7)은 하체의 당당한 형태 등에는 전 시기의 강건함을 느낄 수 있으나 얼굴은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에서 보이던 근엄성이 사라지고 있다. 또한 당당한 가슴, 넓은 어깨 등에서 건장함을 과시하고 있지만, 긴장된 탄력성이 없어지고 장대성만 강조되어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과 같이 현실적 장대성이 나타난다. 佛像의 상체는 그 형태는 물론이고 U형의 넓게 터진 옷깃, 승각기의 비슷듬한 표현, 이를 맨 띠매듭 등에서 仁陽寺 碑像의

26) 문명대, 주 17 논문, pp. 19~20.

표현과 친연성이 강하다. 따라서 이 佛像의 얼굴 표현에서 형식주의 등을 고려한다면 보다 진전된 양식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은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을 이어받은 스타일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防禦山 마애삼존불상과 달리 저부조의 경주 남산 윤을곡 마애삼존불(도 22, 22-1)은 본존불 광배 왼쪽에 '太和 9年' '乙卯' 라는 명문이 있어 835년에 조성된 것으로, 防禦山 마애삼존불상과 함께 신라 조각사 편년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구도와 비례, 형태, 양감, 선 등에서 8세기 佛像과 9세기 후반 佛像의 특징을 함께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곧 佛身에 대한 얼굴의 비례는 석굴암 본존불 좌상이나 七佛庵 佛像群의 본존불과 같은 8세기 중엽 佛像들과 상통하고 있지만, 형태면에서는 8세기 佛像들의 이상적인 모습과는 달리 현실적인 모습이 짙게 반영되고 있다.²⁷⁾ 또한 형태에서 좌우의 균제성이 깨뜨러지고 있으며 얼굴이나 팔 등의 양감이 보림사 철조비로자나불상의 얼굴 등 9세기 후반 불상의 양감과 같이 경직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무봉사 불상 광배 배면 藥師佛像(도 21)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윤을곡 마애삼존불은 조성연대가 밝혀진 마애불로써 防禦山 마애약사삼존불과 함께 신라 조각사 편년 설정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하대 신라 後期에 들어와서는 비로자나불상이 주류를 형성해서인지 藥師佛像은 前期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桐華寺 毘盧庵 3층탑 사리기외함 線刻藥師佛像(도 15), 단성 藥師佛像(도 20),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도 26)은 숫적으로 열세한 이 시기의 藥師佛像을 대표하고 있다.

863년의 절대연대를 가진 桐華寺 毘盧庵 3층탑 사리기 외함에 새겨진 線刻약사삼존불은 일광과 월광을 협시로 하여 삼존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통견의 범의를 입었고 두 다리의 율곡이 범의에 덮혀 보이지 않지만 대좌의 형태는 上臺의 연판 표현이 七佛庵 동면 藥師佛像 연화대좌와 같이 上下 二重의 연판으로 구성되었다.

단성 藥師佛像은 얼굴이 직사각형으로 길고 양 어깨에는 당당함이 여전히 표현되고 있지만 어딘가 균형이 깨어진 것 같다. 대좌에도 신라하대에 유행하게 되는 비로자나불상의 대좌처럼 장식성이 늘어나고 있어 시대의 하강을 알려준다.

단성 藥師佛像과는 달리 당시의 지방양식을 알려주는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은 가슴 앞의 V형 옷섶, 물결식 옷주름선, 기하학적인 무늬를 보여주며 佛身은 다소 경직된 듯 하지만 비교적 안정되고 정돈된 형태이다. 대좌의 연꽃 무늬, 광배의 소용돌이 구름무늬, 佛身의 정돈

27) 文明大, 주 23 논문, pp. 698~700.

된 물결식 옷주름은 당시 조각수법을 답습한 것이지만 당대의 佛像으로서는 격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 佛像은 당대의 대표작은 아닐지라도 889년이라는 거의 확실한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며, 지방색이 현저한 하대신라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에서 살펴본 하대신라 藥師佛像의 양식적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석조藥師佛像에서 평행계단식 주름과 부채꼴 주름이 하나의 양식을 형성하고 있다. 둘째, 윤을곡 삼존불상에서 볼 수 있듯이 9세기 중엽 이후로는 두 다리를 감싸는 옷주름이 앞치마와 같은 형식을 이루고 있다. 셋째 磨崖藥師佛像에서는 高浮彫에서 얇은 浮彫와 線刻으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 넷째 광배에 있어서는 寶珠形 頭光과 새롭게 띠모양의 띠광배가 등장하고 영양 연당동 佛像은 당시의 佛像 광배가 화려하고 복잡해지는 것과는 달리 지방양식화로 단순하고 소박한 광배가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대좌의 경우 金銅藥師佛像에서는 하대석 伏蓮 안에 反轉 대신에 귀꽃을 장식하고 石造佛像에서는 상대석 仰蓮 안에 꽃무늬를 표현하고 있다.

IV. 統一新羅 藥師佛像의 미술사적 의의

이상에서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형식 및 양식적 특징과 변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약사신앙이 초기에는 치병이나 수술에 머물다가 明朗에 와서는 호국적인 면으로 바뀌는 것도 호국적인 면과 연결되는 약사신앙의 한 단면이라 하겠다. 따라서 本考에서는 위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면서 통일신라 藥師佛像의 미술사적인 의의를 살피고자 한다.

통일신라 藥師佛像이 갖는 미술사적 의의는 크게 네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나라의 독특한 藥師佛像 圖像인 降魔觸地印이 변형된 藥師佛 手印이 統一新羅에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독특한 藥師佛 手印이 통일신라 석조藥師佛像에 나타나고 있어 통일신라 이후 藥師佛像의 가장 보편적인 圖像이 되고 있다.

둘째, 동시대의 인도나 중국과 비교했을 때 통일신라 藥器인 藥師佛이 갖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藥師信仰이 발생한 인도에는 藥師佛像이 남아있지 않으며, 통일신라와 동시대의 중국에도 敦煌莫高窟에 주로 藥師淨土變相圖가 남아있을 뿐이다. 용문석굴에 남아있는 藥師佛像(도 29)도 선정인을 한 수인 위에 藥器를 올려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상은 통일신라 藥師佛이 짓고 있는 항마촉지인의 변형인 藥器印과는 뚜렷이 구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셋째, 통일신라 약사불상이 갖는 다양한 도상이다. 즉 사방불 형식, 삼존불 형식, 독존불

형식의 약사불상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약사신앙의 유행과 함께 약사불상이 활발하게 조성되었음을 알려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러나 동 시대의 일본 약사불상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약사불상에서는 12신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고려나 조선 불화에는 반드시 12신장이 나타나는데 조각으로 표현하지 않은 이유는 조각 장소와 기법 상의 문제인 것 같다. 즉 12신장을 조각으로 표현하는 데는 마애불에서 가능할 텐데 현재 약사불상이 조성된 바위는 12신장을 나타낼 만한 공간적인 여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불화에만 12신장이 등장하고 조각에서는 12신장이 나타나지 않은 점이 다른 점이라고 하겠다.

넷째, 절대연대를 가진 防禦山약사마애삼존불상(801년), 윤을곡마애삼존불상(835년), 桐華寺 毘盧庵 3층석탑 사리기외함 藥師佛像(863년), 영양 연당동 藥師佛像(889년)이 갖는 의의이다. 이들 藥師佛像은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거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어 조각사의 편년 설정에 기준작이 되고 있으며, 통일신라 하대의 혼란한 상황 속에서 조성된 불상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V. 맺음말

이상에서 통일신라 약사신앙의 도입과 유행, 형식의 특징, 양식 변천에 대해 간략히 살펴 보았다. 약사신앙의 도입에 있어서 약사신앙을 받아들인 주체세력으로 三國遺事의 密本摧邪條의 기사, 三國遺事 塔像編 芬皇寺 藥師條, 방어산 마애불의 조성기를 통해 국왕 세력들에 의하여 수용되었음을 알아 보았다. 즉 국왕 세력들에 의한 약사신앙의 수용은 기존의 불교 기득권 세력과 토속신앙으로 대표되는 귀족 세력을 억압하여 궁극적으로 전제왕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고찰하였다. 이 외에도 약사신앙의 유행의 원인으로는 질병의 만연과 혼란한 사회·정치사적인 상황이 있었다.

통일신라 약사불상의 형식 분류는 약사불상의 특징이 手印에 있기 때문에 3형식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I 형식과 II 형식은 3형식으로, III형식은 2형식으로 세분하였다. 이 형식 분류를 통해 금동약사불상은 I 형식에, 석조약사불상은 II와 III형식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양식변천은 크게 중대신라와 하대신라로 나누었는데, 약사불상의 양식적 특징은 동시대의 다른 불상에 나타나는 특징과 같지만 단지 手印에 있어 약사불상의 독특한 면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통일신라 약사불상이 갖는 미술사적인 의의를 네 가지로 요약하였

다.

본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明朗係 신인중, 惠通係 총지종과 약사신앙과의 관계, 사방불에서의 명칭 문제 등은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도 1〉 금동약사불상 A, 8세기 초,
全高 11.6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 금동약사불상 B, 8세기,
全高 13.3cm, 慶南 陝天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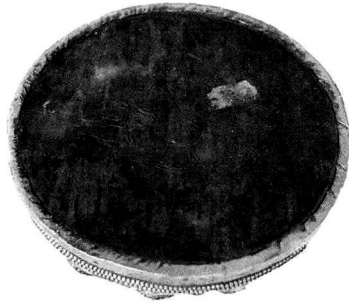
〈도 3〉 금동약사불상 C, 8세기,
全高 11cm, 대구 도동 출토,
국립경주박물관



〈도 4〉 금동약사불상 D, 8세기 후반,
보스톤 미술관



〈도 5〉 금동약사불상 E, 8세기 후반, 〈도 5-1〉 도 5의 대좌 裏面
總高 41.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6〉 청동약사불상, 9세기, 全高 23cm, 한독의약박물관



〈도 7〉 백률사 금동약사불상, 9세기, 佛價高 177cm 국립경주박물관



〈도 8〉 금동약사불상 F, 8세기 말-9세기 초,
全高 13.3cm, 국립중앙박물관



〈도 9〉 금동약사불상 G, 8세기 말-9세기 초
佛像高 36.5cm, 국립중앙박물관



〈도 10〉 금동약사불상 H, 8세기 후반,
총고 29.2cm,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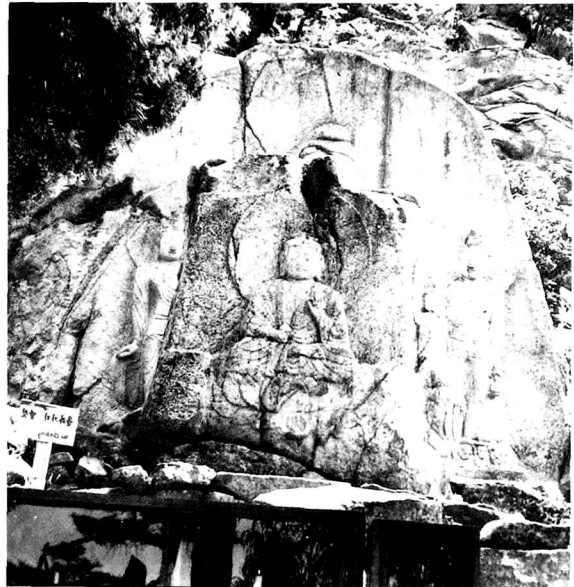
〈도 11〉 굴불사지 약사불상, 8세기 중엽,
佛像高 206cm, 경북 경주시 동천동



〈도 11-1〉 도 11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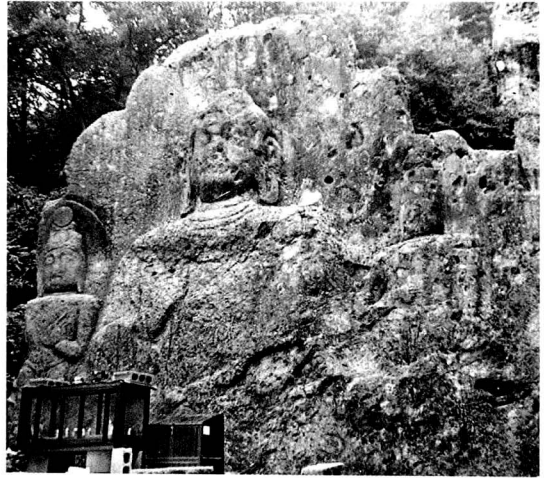
〈도 12〉 칠불암 약사불상, 8세기 중엽,
佛像高 118cm, 경북 경주 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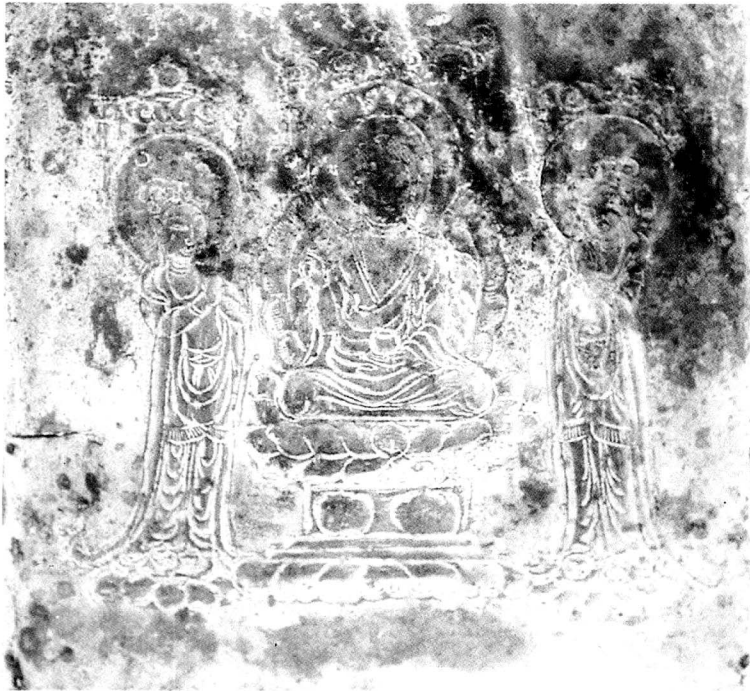
〈도 12-1〉 도 12의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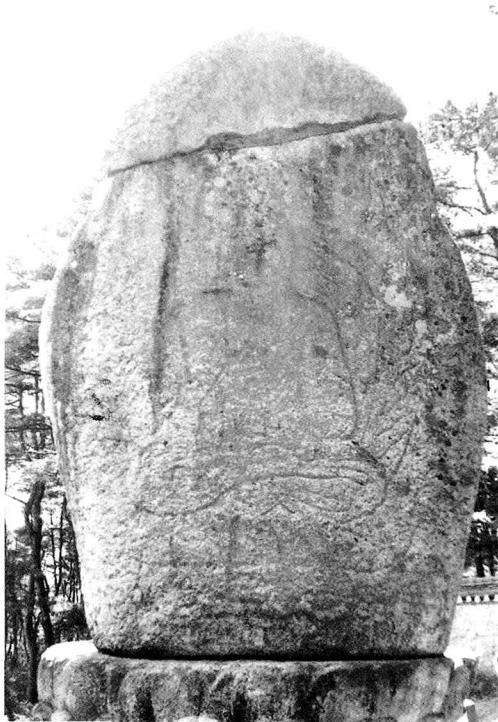
〈도 13〉 방어산 마애약사사마존불, 801년 경남 함안군 군북면 하림리 소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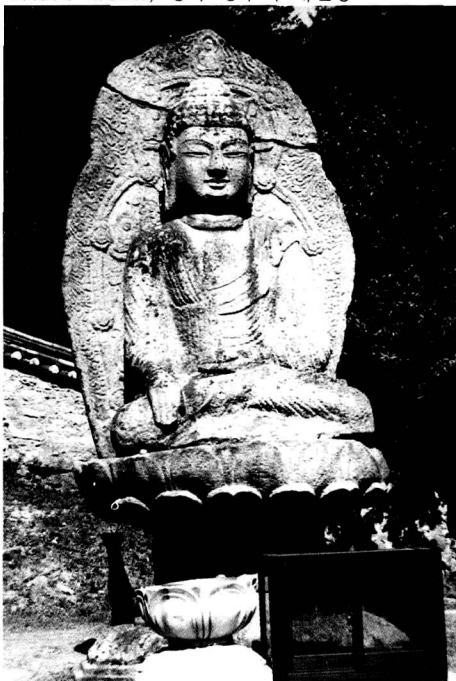
〈도 14〉 어물리 마애약사삼존불, 9세기, 본존고 5m, 좌우협시장 3.3m, 경북 울주군 어물리



〈도 15〉 동화사 비로암 3층석탑 사리기 선각약사불상, 863년,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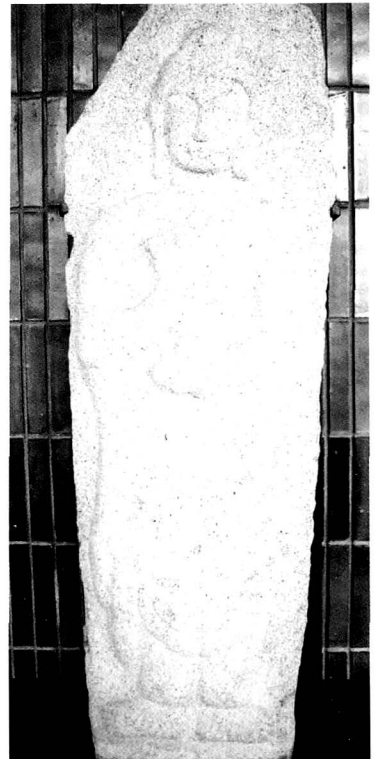
〈도 16〉 보리사 불상 광배 배면 약사불상, 8세기 중엽,
佛像高 130cm, 경북 경주시 배반동



〈도 16-2〉 보리사 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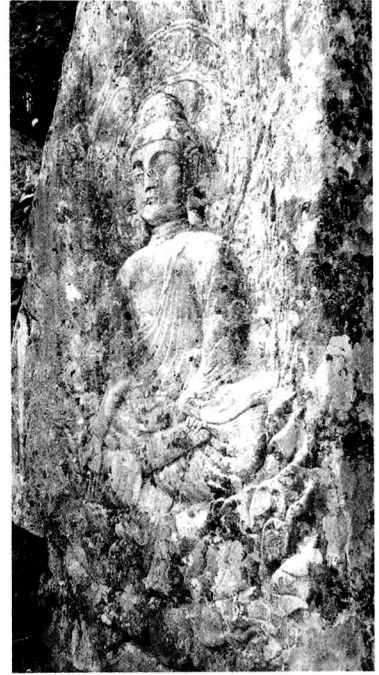
〈도 16-1〉 도 16의 탁본



〈도 17〉 전 개선사지 약사불상, 8세기 후반,
全高 167cm, 국립경주박물관



〈도 18〉 용장계 약사불상, 8세기 중엽, 全高 310cm, 국립경주박물관



〈도 19〉 팔공산 마애약사불상, 9세기, 坐高 200cm, 경북 대구시 팔공산



〈도 20〉 단성 약사불상, 9세기, 佛像高 133cm, 경남 산청군 사원리 출토, 진주 금선암 소장



〈도 21〉 무봉사 불상 광배 배면 약사불상, 9세기,
佛像高 97cm, 영남사지 출토, 무봉사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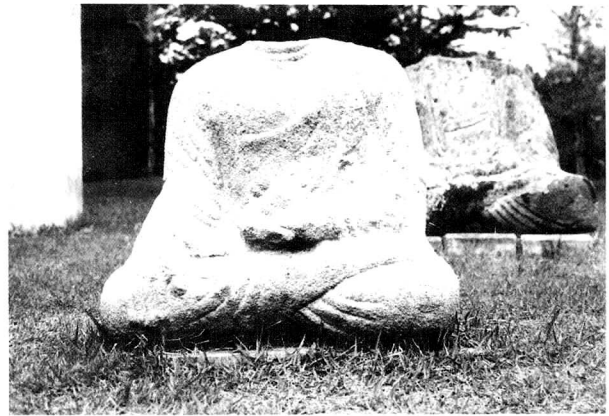
〈도 21-1〉 부봉사 불상



〈도 22〉 윤을곡 심존불 중 약사불상,
835년, 경주 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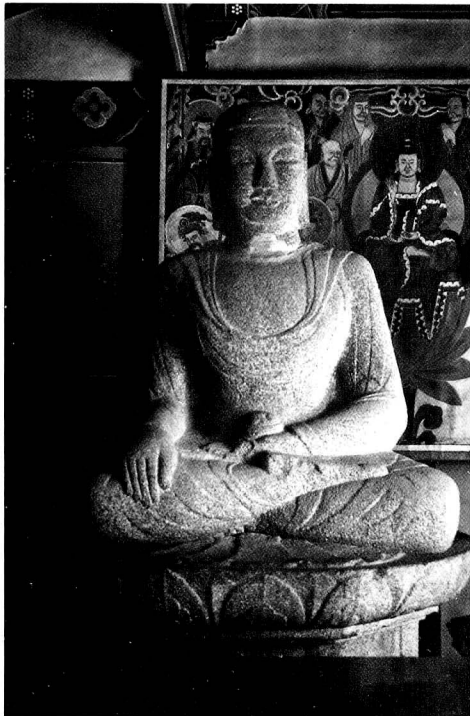


〈도 22-1〉 도22의 전경



〈도 24〉 분황사 출토 약사불상, 8세기 말-9세기 초, 佛像高 52cm,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도 23〉 삼릉계 약사불상, 8세기 후반, 佛像高 145cm, 경주 남산 삼릉골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도 25〉 상주 증촌리 약사불상, 9세기, 全高 168cm, 경북 상주 용화사 소장



〈도 26〉 영양 연당동 약사불상, 889년, 佛像高 112cm,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소재



〈도 27〉 영암사지 출토 금동불상, 동아대 박물관



〈도 28〉 감산사 아미타불, 719년,
총고 174cm, 국립중앙박물관



〈도 29〉 용문석굴 약사불상



〈도 30〉 금동약사불상, 7세기